한국 전근대 여성의 주체적 삶의 양상 고찰
- 젠더 연구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 화 형
(경희대학교)

Ⅰ. 서론

우리는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문분야에 있어 역사학(정치사 중심)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을 역사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만큼 여성에 관한 문헌자료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여성 연구의 역사가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연구가 조선시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다.[1] 한편 연구자의 수가 적다는 점도 한국여성연구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여성에 관한 문헌사료는 절대 부족하다. 그리고 여성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우리의 역사서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정사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이므로 여성의 자취를 찾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는 여왕뿐만 아니라 창기나 유녀 등이 나타나기도 하나 대체로 역사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더욱 중국, 일본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여성사의 보완이 이루어

1) 본고에서 신라와 같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www.kci.go.kr

져야 하며, 서구의 발달된 방법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억압과 젠더 사이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젠더적 연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 전근대여성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새롭게 진행하기로 한다.[2] 무엇보다 다양한 신분별 고찰은 한국 전근대여성에 대한 억압적 측면의 지적에 치중하거나, 남성위주의 논의에 가려져 특정한 계층이나 인물에 국한함으로써 일반화되기 힘든 한국여성의 특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적활동을 비롯하여 생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검토는 자칫 남성중심으로 다루어지기 쉬웠던 다양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근대사회의 한국여성적 특성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여성사연구의 성과들[3]을 수용하면서 새롭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젠더적 연구의 시각을 논의의 중심에 두되, 일반적으로 여성주의 이론이 기반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나 여성주의 비평이 중심으로 삼는 여성의 억압문제에 치중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을 부각시키고 모순을 폭로하는 의미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더 충실하게 주체적 삶을 드러내는 의의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고의 목표는 여성주의 이론의 틀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대 여성들의 삶은 물론 한국의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하겠다. 다만, 갑오경장 이전 전통사회의 여성에 대해 주요 史例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4]

---

2) 젠더란 곧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이며, 여성주의는 일상생활에서 젠더가 수행하는 막대한 역할을 분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로이스 타이슨/윤동구 옮김,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241면).

3)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이성숙, 「오늘날, 여성사란 무엇인가」, 『여성과역사』 제6집, 한국여성사학회, 2007. / 정현백,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자리 잡기'와 '새판 짜기' 사이에서, 『여성과역사』 제17집, 한국여성사학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4) 전근대라는 광범위한 범주를 설정함에 따라 연구의 대상(여성)이나 다루는 분야의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한국여성 전반이 주체적 삶을 견지했음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www.kci.go.kr

Ⅱ. 사회적 신분의 측면

여성주의자들이 관찰하는 바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은 정치적 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남성이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이에 우리의 여성사를 비춰 보면 어느 정도 일치되기도 하나 우리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인식은 상당부분 허구로 여겨진다. 더구나 심하게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성을 물건처럼 다룬다[5]고도 하는데, 그게 가부장제의 특징이라면 우리의 가부장제는 그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가부장제를 어느 시기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우리의 여성들이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왕이나 왕비로서 할 일을 다하고, 사대부가여성들 가운데 '군자'로까지 불리며 자기 역할을 해냈던 인물들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서 주체성의 인식은 소중하다고 본다. 더구나 천민여성에게서조차 주체적 존재의식이 엿보이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가부장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작동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 여성이 겪는 가부장제의 억압은 달라질 수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각도 일관되지 않다. 메리 셸리의 ≪프랑케슈타인≫(1818)은 여성의 강인함을 묘사함으로써 여성은 나약하다는 가부장제의 통념에 반기를 든 바도 있다.[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도 나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분의 높낮이보다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신적 존재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데올로기의 매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계급이라 할 수 있다. 계급차별은 인간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종교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신의 존재에

5)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208면.
6) 위의 책, 261면.

www.kci.go.kr

대한 물음은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다. 그보다 인간존재가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러므로 여성이 신모로서 숭앙받았다고 할 수 있다. 나라를 수호하고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사를 받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여성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 역사서인『삼국유사』나 민속학지인『동경잡기』등의 첫머리에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고대에는 여성을 국가의 신으로 섬겼고, 또 여성들은 국가의 제사를 주관할 만큼 이상적인 역할을 했다.

1) 토속적 무속신

地母神 :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이 지모신으로 숭배되었던 이유는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귀결이다. 더구나 우리가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된 농경의 실마리는 구석기시대 여성들이 담당했던 채집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인류최초의 혁명을 이루어 낸 주체는 여성이라고 한다. 곡령적 성격을 지닌 신라왕들이나 동명왕모 유화, 기우와 관련된 운제산 신모가 바로 농경 지모신이었다.

聖母神 : 우리는 일찍부터 산신 가운데 특히 나라를 세운 국조신은 물론 성모신을 극진히 모셨다. 성모신은 대체로 신분이 높은 여성이 사후에 신격화된 신이다. 선도산성모(東神성모)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그의 아내 閼英을 낳았을 것이라는 성모(신모)이다. 신라 박제상의 아내 치술부인도 성모신(신모신)이고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을 낳은 정견모주도 성모신이다.

國巫 : 수로부인을 무녀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신라 성덕왕 당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무녀인 수로부인을 명주로 보내 기우제를 주관하도록 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다.[7] 다시 말해 수로부인은 신라 때 國巫로서 제의를 통해 사회의 소란한 민심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한편 신라 2대왕인 남해 차차웅(무당을 의미)은 여성사제, 즉 무당인 누이 아로부인으로 하여금 시조인 박혁거세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

7) 최정선,『신라인들의 사랑』, 프로네시스, 2006, 45면.

www.kci.go.kr

2) 애니미즘적 신

<단군신화>에서 곰이 여인으로 변신하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낳음으로서 한국문화의 시원부터 애니미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김현감호설화>[8]에 나오는 호랑이처녀는 타인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며 남성에게서 구하기 힘든 희생적 정신을 보임으로써 여성 특유의 긍정적 가치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신성한 공간(흥륜사)에서 내적 교감에 의해 이루어진 신심은 세속적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다. 김현이 이끌린 것은 미모의 매혹적인 여성이 아니라 이상화된 여성으로서의 호랑이처녀였다.

알을 낳은 柳花는 주몽의 어머니가 되고 유화는 나중에 신으로 좌정했다. 유화는 이미 해당지역에서 생산과 창조의 신으로서 버들신이자 빛과의 결합을 통해 주몽을 잉태한 수신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유화는 주몽에게 비둘기를 날려보내 오곡(보리)의 종자를 전해준 곡신(농업신)이기도 하다.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불경을 싣고 다니는 소였으며, 욱면은 부석사의 소였다가 아간 귀진의 계집종으로 태어났다.

혁거세와 혼인한 신라의 알영은 우물가 계룡(용알)의 왼쪽 갈비에서 나왔다. 우물가에서 출생한 알영은 물의 신이자 지모신으로서 농업과 길쌈을 관장하기도 했다.

음악·지혜·재복을 주재하는 여신인 辯才天女는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일곱살에 출가한 지통이 계를 받게 해었다.

3) 불교적 신

관음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정토왕생을 희구하는 수행자를 도와주는 이야기는『삼국유사』에 많이 보인다. 여성으로 나타나는 관음보살의 사회적 신분은 낮다는 데 주목해야 하며, 여기서 여성은 대부분의 남성들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9]

---

8)『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 김현감호.

9) 원래 관음은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여성신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것은 관음의 자애롭고 따사한 마음 씀씀이가 여성과 닮았고, 또 여성들이 불교 안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자 불보살에게 간절히 기원하는 과정에서 여성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최정선, 앞의 책,107면).

www.kci.go.kr

관음은 원효에게 벼 베는 여인과 月水帛(개짐)을 빠는 여인으로 나타난다.[10] 신효거사에게 나타난 늙은 부인과 달리 관음이 도를 닦는 승려들에게 구태여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깨우침을 주고 있다.

'광덕과 엄장'이야기[11]의 중심은 관음보살의 화신인 분황사 계집종이다. 미모의 여인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은 광덕이 죽어서 서방정토로 가는 것을 도와주고 다시 광덕의 아내에서 엄장의 아내로 그 역할을 바꾼 관음은 엄장에게도 욕정을 다스리도록 깨달음을 주고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신의 꿈'이야기[12]에서 조신은 관음보살전에 간절하게 빌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만 결국 한 바탕 헛된 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조신의 꿈 속에 등장하는 김낭자는 아내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생활에 정진하도록 인도하는 관음보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교적인 신으로 국사인 경흥의 병을 고쳐준 여승, 부처가 된 계집종 욱면, 아이의 눈을 뜨게 한 희명 등을 들 수 있다.

2. 인간적 존재

1) 궁중여성

① 여왕 및 왕대비

여성이 국신으로 숭배되고 제사장으로 군림하던 전통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던 사회가 여왕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13]고 한다. 관직에 임명된 예가 없기 때문에 신라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3명의 여왕이 존재했다는 점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실로 이는 골품제에 따른 것이다.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성임금으로 16년 동안 통치를 한 용기 있고 지혜로운

10)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11)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 廣德嚴莊. / 이와 비슷한 구도를 지닌 것으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南白月二聖 努힐夫得 怛怛朴朴)도 있다.
12) 『삼국유사』제3권 탑상 제4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
13) KBS, 『역사스페셜』1, 효형출판, 2000, 136면

www.kci.go.kr

인물이다. 집안 남자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려는 아버지 진평왕에게 선덕은 "내가 왕이 되겠소"라고 말할 만큼 당찬 여자였다. 그는 당나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제를 자처하듯 과감하게 仁平이라는 연호까지 사용했다.[14]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뜻으로 '芬皇寺'를 세운 만큼 그녀는 신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했다.

진덕여왕은 외교능력이 뛰어났으며, 당 고종에게 비단에 <태평송>을 수놓아 보냈다. 당에서 선덕을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다(女主不能)'고 한데 비해 먼저 '계림국왕'에 책봉했을 만큼(구당서) 외교적 정치역량을 보였다.

진성여왕은 많은 남성 왕들이 개인적인 권력의 욕심으로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과 달리 그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최초의 왕이다. 더구나 자신의 아들 둘이 있었으나 오빠 헌강왕의 서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만큼 훌륭한 왕이었다. 오직 운명이 다해가는 신라를 구원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대비(왕대비)는 왕을 낳은 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실제적 군주로 인식돼 '女主'로 불렸다. 남편을 잃은 왕후는 누가 보위를 잇든 간에 왕대비가 되었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국왕을 대신하는 수렴청정을 해야 했다. 대비에게 섭정토록 한 것은 왕위 찬탈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대비의 섭정은 평화적인 왕위 계승에 기여하였다.

삼국시대에 섭정을 했던 태후는 태조모후와 지소태후 2명이 있다. 고려시대 목종의 어머니인 헌애왕후는 천추궁에 머물면서 제후의 어머니인 대비가 아니라 천추태후라 부르게 함으로써 고려를 황제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조선의 수렴청정은 총 8차례 시행됐다. 세조의 비 정희왕후는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으며,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는 20년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도 정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이 어진 정치를 펴 백성들로부터 숭앙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다.

② 왕비 및 후궁

세 번의 간택에 의해 결정되는 왕비는 궁중여인들로 조직된 내명부의 수장이자 관료들의 아내로 조직된 외명부의 수장이었으며, 왕비는 관료들에게도 충성

14) 『삼국사기』 제5권 신라본기 제5 선덕왕.

www.kci.go.kr

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15]

남편 優台가 죽은 후 召西奴는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할 때에 그의 왕비가 되어 국가의 일을 돕는 한편 백제 시조인 온조의 어머니가 된다.[16] 신라의 알영은 혁거세와 결혼하여 13세에 왕후가 된 인물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2성으로 추앙되었다. 신라 소지왕의 부인 선혜왕후는 자유분방한 여성관의 기틀을 세웠다. 왕건이 궁예를 배반할 수 없다고 하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의를 위하여 불의를 쳐야 한다"며 갑옷을 입혀 주었던 유씨부인은 왕건이 고려를 세운 뒤에도 남편을 크게 도왔다.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울 만큼 여성의 지위도 상당했다. 때문에 엄숙한 궁중 안의 질서에도 불구하고 왕실여인들의 일탈도 가능했다. 조선의 왕비는 36명이었다. 쿠데타의 결행을 주저하던 남편 방원 몰래 기회 있을 때마다 무기를 장만하면서 훗날에 대비했던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과 동지적 입장에 섰던 정권욕과 결단력이 강했던 여걸이었다. 고종의 부인 민씨는 세자에게 '백성이 근본이다'라고[17] 할 만큼 어느 왕비보다 정치력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소혜왕후 한씨, 문정황후 윤씨 등 많은 왕비들은 공인으로서의 곡절이 많았고 그들의 위상은 녹록치 않았다.

후궁은 내명부 가운데 정1품 嬪에서 종4품 淑媛까지에 해당한다. 후궁은 왕의 첩에 불과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였다. 원칙적으로 후궁은 왕비가 될 순 없지만 여럿이 왕비에 올랐다.

신라의 『화랑세기』에는 32명의 대표화랑 풍월주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후궁 美室이다. 마음대로 왕을 갈아치울 만큼 남성 위에 선 미실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신라의 미인이다. 고려시대에는 '비'란 표현이 후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만큼[18] 후궁 역시 명실상부한 '왕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정비와 후궁의 자녀들 또한 차별이 없었다. 충렬왕과 그 아들인 충선왕을

15) 김종성, 『왕의 여자』, 역사의아침, 2011, 267면.
16) 신채호는 "소서노는 조선사상의 유일한 여제왕의 창업자일뿐더러, 곧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건설한 자"(『조선상고사』)라고까지 말했다. 백제 시조를 온조가 아니라 소서노로 본 것이다.
17) 윤정란, 『조선의 왕비』, 차림, 1999, 253면.
18) 『고려사』 후비 열전.

www.kci.go.kr

번갈아 모시며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한 숙창원비도 후궁이었다. 조선조 101명의 후궁은 왕비의 위상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나름의 지위를 드러냈다. 연산군은 제안대군 家奴의 아내가 된 뒤 가무를 배워 창기가 되었던 장녹수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숙원으로 봉했다. 희빈 홍씨는 조광조를 몰락시키고, 타격을 받은 사림파가 50년 뒤 집권하면서 붕당의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림파정치가 말기적 증상을 보이던 숙종시기에 붕당정치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 후궁 최숙빈이다. 희빈 장씨는 여종 어머니의 딸로 천한 신분으로 살 운명이었으나 아들 균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왕비가 되었다.

③ **공주 및 옹주**

조선왕조에 재위했던 27명 국왕에게만도 35명의 공주와 77명의 옹주가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최초로 조선시대 왕의 딸들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19]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뜻있는 일이다.

평강공주(고구려)는 귀족과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에게 "나라의 임금께서 약속을 어기실 수 있느냐"[20]고 따지기까지 했다. 제 발로 나갔을 만큼 주체적으로 행동했고, 궁궐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스스로 바보 온달을 선택하여 아내가 되고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신라의 선화공주가 미천한 서동과 사통하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는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선화공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방되는데도 변명하거나 항거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바라는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선화공주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왕비의 자리를 쟁취했다. 조선 문종의 딸인 경혜공주는 남편이 단종복위와 관련되어 능지처참되고 나서 순천의 관비가 되었다. 순천부사 여자신이 사역을 시키려하자 "나는 왕의 딸이다--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인가?"[21]라고 했다. 세조에게 맞선 경혜공주의 자존심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원효를 사로잡은 자유의지의 요석공주를 비롯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열정적으로 도왔던 세종의 둘째딸 정의공주, 정조의 라이벌로

19) 신명호, 『조선공주실록』, 역사의아침. 2009, 7면.
20) 『삼국사기』 온달전.
21) 『연려실기술』 단종조고사본말 , 정종.

www.kci.go.kr

대립한 영조의 딸 화완옹주 등 공주(옹주)들의 의지와 행동은 만만치 않았다.

궁중여성으로서 세자빈 등도 있는데, 조선의 의경세자빈 한씨를 비롯하여 소현세자빈 강씨, 사도세자빈 홍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세자빈은 비교적 불안하고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역경 극복의 삶을 살았다고 하겠다.

2) 사대부가여성 및 서민여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오던 여성들의 행동은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구속되기 시작했다. 조선건국 후 여성들의 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고려말 여성들의 방만한 외출에 기인한다고 본다. 『고려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고려말 부녀자들이 남편의 이권운동에 참여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조선 초까지도 사찰의 왕래 및 숙박, 야외놀이에서의 추문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왕의 거둥, 종교적인 모임, 중국 사신의 내왕 등 국가적인 행사 때는 부녀자들이 구경하러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22] 더욱이 무속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즐겼다. 산이나 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벌어지는 술자리에서도 풍악에 맞춰 춤을 추며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가곤 했다.[23]

이밖에도 여성들은 꽃놀이, 들놀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생활의 지루함을 풀 수 있었다. 물론 여성만의 안채문화도 그들 나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24]고도 한다. 한국의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중세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이었다는 학설조차 있다. 즉 양반계층 내에서의 주부의 위엄에 찬 권위 내지 가사결정권은 상당히 무거운 것이었고, 거의 전적으로 노동을 면제당한 遊閑的 상황은 계층 내에서 억압이 없었다고 보며, 서민들에 있어서도 가혹한 노동 대신 많은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다.[25] 이와 관련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사료에 나타난 여성들의 여가(놀이)활동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

22) 『용재총화』, 『대동야승』권1.
23) 『세조실록』 세조 3년 4월.
2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90면.
25) 임인영, 「한국근대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사」, 『한국근대여성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87, 83면 재인용.

www.kci.go.kr

대체로 전근대사회 여성은 신분적 제약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했으므로 여성의 독립적인 활동이나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키 어려웠다고들 한다.[26] 그러나 여성들이 수행하는 '접빈객'을 단순히 집안일의 연장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공적인 회합에 대한 활동으로 보기도 한다. 즉 남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여성들이 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봉제사' 역할도 일상적인 가정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가부장제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줄 알았던 미암 유희춘의 아내인 송덕봉을 비롯하여 허난설헌, 신사임당 등의 당당함이나 가부장제의 권위에 억눌리지 않았던 기상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강정일당의 남편 윤광연은 부인이 죽자 "내 그대를 잃었으니 참으로 막막하구려. 공부하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내게 지나친 허물이 있어도 누가 타일러 주겠는가?"[27]라고 탄식했으며, 부부지간이지만 존경하는 스승과 같았다고 실토했다. 조선중기 전까지 여성들은 시집을 간 뒤에도 친정에 살았던 예가 많았거니와 친정의 일을 하는 데도 적극적이고 당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28]

윤회봉사나 분할봉사 등의 제사상속은 조선중기까지도 부계적인 가족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성리학적인 관점에 기초한 가부장권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여성의 독립적인 재산권은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전까지도 여성재산권은 보호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대부집안의 여성이나 서민여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

---

26) 사실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27)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28) 17세기에 들어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장자 위주의 상속으로 제도가 바뀌고 딸의 지위가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열녀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여성은 규방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바깥세계와의 단절이 엄격해지기 시작했다.(김경미,「임금앞에 서고 싶었던 규방의 부인 송덕봉」,『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66면).

www.kci.go.kr

고 자신들의 할 일을 책임있게 해온 편이라 하겠다. 특히 일반서민들의 경우 가사를 비롯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본다.

3) 천민여성

천민여성에는 궁녀를 비롯하여 기생, 의녀, 무녀, 노비 등이 있다.

① 궁녀

궁녀(궁인)는 내명부나 특정처소에서 벌어지는 정치에서는 주체적 행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김개시의 경우 궁녀의 신분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한 대표적인 예이다.

궁녀는 일반적으로 尙宮과 內人을 의미한다. 보통 10세 미만에 궁에 들어와 생머리를 묶은 어린 견습나인(생각시)들은 약 15년이 지나면 정식나인이 되었고, 그 후 약 15년이 지나면 정5품의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귀족여성들도 궁녀로 불린 예가 있는데, 왕의 후궁까지도 폭넓게 지칭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녀는 양인 이하 신분층이었다. 궁녀였던 신빈 김씨는 세종의 두 번째 후궁이 되었고, 침방나인에 불과했던 숙빈 최씨는 영조의 생모가 되었다. 서울의 칠궁은 조선 왕의 생모인 일곱 후궁들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여섯 명은 궁녀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궁녀는 남성중심의 조선사회에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은 관리였고,[29]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전문직여성이었다. 또한 조선의 궁녀들은 한말 복식과 함께 궁중요리를 전수했고, 궁중문학을 남겼으며 또한 궁녀들은 자신들을 수련시키는 방편으로 궁체를 만들어냈다.

② 기생

고려시대에는 우왕이 기생 용덕을 숙비(종1품 후궁)로 삼고 기생 칠점선을 영선옹주로 삼는 등 기생에게 벼슬을 준 사례가 많다. 그리고 기생 동인홍, 우돌 등의 한시가 고려사대부들의 문집에 전해져 온다.

---

29) 『대전회통』에 따르면 궁녀란 '宮中女官'의 별칭으로서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관리를 뜻한다.

www.kci.go.kr

조선의 기생들은 公物 혹은 官物이라 하여 관청에 예속되어 있는 노비에 지나지 않았다. 관노비로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도 없는 이들은 흔히 변방의 군인들의 시중을 들거나, 관아 행사의 연예, 사신의 접대 등에 동원되었고 때로는 수청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주로 양반계층과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생들은 각종 악기와 가무를 배우고,[30] 문장이나 書畵도 익혀 두루 교양을 갖추어야 했다. 국난을 당해서는 행동으로 우리 역사를 지켜온 주역이기도 하다. 적어도 논개나 계월향 등은 독립운동가요, 황진이나 매창 등은 예술가였다. 그녀들은 몸은 파는 창녀나 남성의 노리개가 아니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다.

③ **의녀**

조선시대 의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천인출신으로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의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 출신 탓에 본업 외에 기생이나 수사관 등의 역할을 감내해야 했지만 직업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하였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당대의 최고 전문직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31] 의녀는 소속 기관에 따라 크게 혜민서 의녀와 내의원 의녀로 구분되는데, 혜민서는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고, 내의원은 왕을 비롯한 왕실가족을 위한 최고 의료기관이었다. 의녀에도 나름의 지위나 직급이 있어, 어의녀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수의녀를 비롯하여 어의녀, 차비대령의녀, 내의녀, 사환의녀 등으로 나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의녀로는 성종대의 장덕과 귀금, 중종대의 대장금, 선조대의 애종과 선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의녀로서 장금이를 들 수 있는데. 중종실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금이는 최초의 여성 어의이다. 제주 기생 만덕은 내의원의 수석 의녀[32]였다.

④ **무녀**

---

30) 조선이 고려 제도를 이어받아 여악을 위해 기생을 두어 內宴에 썼으니……여러 군에 명하여 기생을 뽑아 올려 樂院에 예속시켜 노래와 춤을 익히도록 하였다.(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82면)

31) 한희숙, 『의녀』, 문학동네, 2012, 7면.

32) 만덕은 서울에 와서 내의원 행수기생이 되었는데, 이는 기생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다.

www.kci.go.kr

국가에서 무당을 보호하면서 위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데서 그들의 역할과 위상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무녀들은 조정안에 있는 성수청이나 활인서 등에 기거하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병치료를 하는 등 국사의 일부를 수행해야 했다. 조선 태종의 아들 성녕대군이 병이 들었을 때 가이라는 국무가 그 병을 쫓기 위해 궁중에서 음사하였다. 무당을 성 밖으로 내쫓는 법령까지 제정하고 실행되는 정황에서도 궁 안에서는 왕비를 중심으로 무속행위가 자행되었다. 숙종때 장희빈이 인현왕후 민씨를 죽이기 위해 무당을 불러 저주하며 민씨의 초상화에다가 화살을 쏘던 경우가 그러하다. 19세기 말에도 명성황후가 시아버지 대원군을 저주하는 굿을 벌여 정치문제가 된 바 있다. 조선을 지배하는 성리학이 인간의 최대관심사인 禍福의 문제나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었다.

III. 경제적 활동의 측면

여성주의 비평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론이든 인간의 문화와 관련된 경제적 현실을 중시하지 않으면 해당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우리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있었는가. 활동은 활발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등은 여성의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어느 영역에서나 여성은 타자였다[33]고 하나, 왕족 여성은 물론 허난설헌을 비롯한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나 천한 신분의 기생들[34] 가운데는 주체적인 의식을 드러낸 여성들도 많다.[35] 특히 주체적 사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적절히 나타났다. 델피는 가족 안에서 여성은 하위에 속하는 존재이며 결혼은 여성을 무보수의 가사노동에 옭아매는 노동계약이라고[36] 했으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나름의 지위가 있었고 그들은 가사노동에만 구속되지 않고 활발하고 다양하게

33)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210면.
34) 이화형, 앞의 책, 177-185면.
35) 자신 및 타인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주의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36)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222면.

www.kci.go.kr

경제활동을 펼쳐나갔다.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크게 지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 활동을 통해 그들의 능력과 지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생산활동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며 그에 따른 위상이 확보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사회가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 전근대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협력자나 자녀교육 담당자 나아가 집안 살림의 책무자 등의 역할과 자격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가정적 · 사회적 지위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37] 다시 말해 전통사회 속에서 인격적 도야와 함께 지적활동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여성들에게는 가정은 물론 사회적 · 국가적으로 지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

1. 지적활동

비평이론에 따르면 경제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철학, 교육, 종교, 정치, 학문, 예술, 과학 등을 막론하고 모든 유무형의 사회적·정치적 활동 이면에 작용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자들 가운데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문화적 생산물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생산물, 예컨대 문학, 음악, 미술 등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지적활동과 자아실현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임윤지당을 들 수 있다. 임윤지당은 여성의 지적능력과 남녀평등을 언급했다.[38] 그는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야 남녀의 차별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지적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 가운데 철학, 정치, 교육, 문학 등에서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들의 철학적 관심을 통해 사유방식과 사상적 깊이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관 속에서 자녀교육의 책임성을 인식하는 여성 정체성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37) 이남덕은 농경사회의 여성은 의(衣)와 식(食)을 전담하는 생산자라는 점과 출산자로서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했다.(이남덕, 「전통사회와 여성의 힘」, 『한국여성의 어제와 내일』, 이화여대출판부, 1976, 11-23면).

38) 『임윤지당유고』 언행록.

www.kci.go.kr

그리고 그들의 문학적 성과 등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

1) 철학

유교 : 임윤지당은 성인이 되려 했던 조선 초유의 여성 성리학자로 불리는데, 윤지당이라는 호에는 중국 고대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부인 태사를 본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마침내 임윤지당은 『中庸經義』라는 저작을 완성했고, 현재 전하는 『윤지당유고』에는 「이기심성설」「예악설」등 6편의 설이 실려 있다. 강정일당은 임윤지당을 사숙한 만큼 두 사람은 조선의 대표적인 도학자들이었다.

불교 : 고구려의 불교가 신라에 전해질 때 큰 역할을 했던 모례의 여동생 史氏는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여승이다. 진혜대사는 남편 사후 출가해 구도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여성으로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간행하며 많은 불사를 일으켜 고려 최초로 대사 칭호를 받았다. 고려 때부터 있었던 정업원은 왕실에 속했던 비구니들의 사원이다. 불교와 관련된 왕후로 정희왕후, 소혜왕후, 문정왕후 등을 들어 억불숭유의 조선시대에 여성들에 의한 불교계승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정왕후는 조선의 국시를 불교로 바꾸려고 했다.

천주교 : 洪芝榮의 후처로 시집갔던 강완숙은 조선 천주교 최초의 여회장이었다. 강완숙은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신부를 도왔다.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별거당한 양반가 부녀자가 외간남자를 집안에 들여 놓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일이었다. 여섯 차례나 주리를 트는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부인으로 일관해 형리에게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는 탄복을 낳게 했다. 그녀에 의해 천주교가 왕족에게도 전파되었다. 김효임자매의 순교도 간과할 수 없다.

무속신앙 : 무속신앙은 유학적 질서에서 배제된, 한민족의 정신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발달했다. 마을제의와 조상제의를 주도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무속신앙에서 우위를 점했다. <봉산탈춤>에서 미얄할미가 무당으로 등장하는 것은 할미의 존재가 무속사회를 지배하는 신의 사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www.kci.go.kr

2) 교육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저술로 남겨지거나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실천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저술에 해당하는 여성교훈서 가운데 여성필자의 교훈서로 대표할 만한 것으로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영빈 이씨의 『여범』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교육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소혜왕후가 지은 『내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간된 전문적인 여성교육서가 되는 셈이다. 『내훈』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남성들에게 달려있다고는 하나, 여성의 감추어진 능력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여성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여성으로서의 학덕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사주당 이씨에 의해 쓰여진 『태교신기』라는 책은 세계 최초의 태교관련 단행본이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일컬어 "훌륭한 의사는 병들기 전에 치료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르친다. 따라서 스승에게 10년 배운 것이 어머니의 열 달 가르침만 못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자기 희생적 모성애가 있기에 자녀교육에서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구려 유화부인은 "너의 재주는 남만 못하지 아니하니 빨리 이곳을 떠나 훗날 큰 일을 도모하라"는 등 늘 아들에게 장엄하게 훈계하였다. 김유신이 기생 천관의 집으로 내달린 말의 목을 베었던 것은 어머니의 뜻에 따른 것이고, 김유신의 부인이자 원술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은 싸움에 지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부인은 인자했으나 아들교육에는 매우 엄했다. 그가 지었다고도 하는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그녀의 삶의 지향이 잘 드러난다. 호가 一蠹인 조선의 정여창은 스스로를 좀에 비유할 만큼 높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최씨는 "너는 아버지 없는 아이이니 남보다 더 행실을 단정히 하고 글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홍섬의 어머니 송씨부인은 "그대가 전에는 나의 아들이나 지금은 임금의 대신이오. 대신의 몸으로 임금이 병환 중에 계신데 어찌 감히 사사로운 어버이에게 올 수 있겠는가"[39]라고 했다.

39) 안춘근, 『역사를 빛낸 한국의 여성』, 범우사, 2002, 149면.

www.kci.go.kr

3) 문학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문화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그것이 쓰인 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낳은 하나의 생산물이다. 더구나 여성적 언어는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에 빠뜨리는 가부장제의 이항대립적 사고의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언어인데, 엘렌 식수는 이런 종류의 언어가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다.[40]

역사적으로 여성의 문학적 업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여류시인 서영수합의 시문을 비롯하여 김호연재의 시문은 주목할 만하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여성의 문학적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여류문인 가운데서도 조선의 허난설헌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그녀는 남편의 경박성을 지적할 만큼 한국여성사에서 주체적인 의식을 보였다. 허난설헌은 <연밥 따는 노래>나 <그네 노래> 등을 통해 여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관능과 욕망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권섭의 어머니인 용인 이씨는 소설을 필사하여 집안의 여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도 했다.[41]

첩이라는 신분적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는 이옥봉의 시들은 천고의 절창으로 불린다. 궁녀들의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등의 서사문학을 비롯하여 황진이, 계랑, 부용, 군산월 등으로 대표되는 기생들의 문학적 성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생들의 시조는 한국문학사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42] 사랑의 시로 유명한 삼의당 김씨의 시문집인 ≪삼의당고≫도 간과할 수 없다. 서녀이자 소실이었던 김금원을 포함하는 신분이 낮은 여성들로 구성된 최초의 여류시단이라는 '삼호정시사'의 존재도 중요하다. 노래하는 계집종이나 시 짓는 계집종들을 집안에서 육성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며, 계집종 신분의 여성이 지었다는 한시가 남아 있기도 하다.[43] 해녀의 삶과 그들의 민요라든가 한국 속담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의식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문을 통해 존경을 표하는 남편들의 진정성에 여성의 가치와 역할을 새삼 느끼게

40)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227면.
41) 권섭, 『옥소집』.
42) 이화형, 『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 새문사, 2009, 119-239면.
43) 박무영, 「생애는 석자 칼 마음은 내건 등불 김호연재」,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144면.

www.kci.go.kr

된다.

4) 기타

조선의 안동 부인 장씨(장계향)는 땅을 사서 남편으로 하여금 후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고, 부친이 죽자 친정의 동생들이 성장할 때까지 돌보기도 했다. 정부인 장씨의 유적비가 세워지고 그녀를 불천위로 모시는 것은 남성중심의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여성의 존재적 가치를 뚜렷이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장씨가 쓴『음식디미방』은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지은 최초의 요리서로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한다.[44)]

실학자 빙허각 이씨의『규합총서』에서는 학문과 재능에 뛰어난 여성들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 저술은 생활백과사전으로서 음식, 옷, 길쌈, 밭일, 꽃심기, 가축 기르기, 태교 및 육아 등의 문제를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의 신사임당은 뛰어난 화가로서 그녀의 포도그림은 세상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으며 난초그림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오늘날 여성 최초의 화폐인물로 등장할 만큼 매력 있는 인물로서 남편의 부족한 점을 타이르고 바로잡아 줄 정도로 자아의식이 확고했다.

이밖에도 유랑예인 안성남사당패의 꼭두쇠였던 바우덕이, 풍속도를 그린 화가 윤덕희를 비롯하여, 민간신앙, 의식주, 의례, 명절, 전쟁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민속악, 무속화, 탈춤 등 우리 한국예술문화의 원천이 모두 무녀(무속)에서 유래하고 있다.

2. 생산활동

전통여성들의 가정경영을 위한 가사활동을 비롯하여 집밖에서의 생산활동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의무와 더불어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여성들의 농공상의 생산활동, 특히 직조분야의 수공업 내지 상업활동 등은 여성 지위의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학자 이덕무는 여성들이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이익을 내는 일을 잘 경영하여 이에 의지

44) 이 책은 그 이전의 김수가 쓴『수운집방』이나 허균이 지은『도문대작』등과 달리 146가지의 음식의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 본격적인 요리서이다.

www.kci.go.kr

하여 생활하는 남편들이 꼼짝 못했다[45]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체면을 가리지 않고 생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남편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관리와 경제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조선후기 申曔은 아내 파평윤씨가 죽자 "나는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당신이 주관하고 변통하도록 맡겨두고 따로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보니 두 팔을 잃은 것보다 더 불행하구려"[46]라고 통곡한 바 있다. 농공상이 경시되는 명분사회에서는 오히려 농공상을 책임졌던 여성들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속학자인 李能和씨도 농업, 상업, 수공업 등 봉건경제의 전 분야를 담당했던 여성들이야말로 조선역사상 실로 주요한 지위에 있었다[47]고 말했다.

1) 가사

남녀유별의 내외법에 따라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대체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실천적 교육을 통해 밥 짓는 일에서부터 누에 치고 옷 만들고 제사 받들고 손님 접대하는 등 집안살림 모든 일에 관한 것을 배워야 했다. 더우기 여성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서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서부터 남편의 시중을 들고 노동력 재생산 노동에 속하는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면서도 온갖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조선조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충실했던 현상을 유교이념이 아닌,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위로서의 '모권'이나 '안채문화'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48]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대외활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들은 집안에서 생활의 작은 여유와 함께 가정경영에 책무를 다했다. 조선중기 이후 가부장적 체계가 확고해지면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구속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남편을 도와 바깥일까지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평민층의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외법에 따라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오히

45) 이덕무, 『사소절』.
46) 『直菴集』「祭內子淑人尹氏文」.
47) 이능화(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368면.
48)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9.

www.kci.go.kr

려 가정경제의 실권을 쥘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가정경제 경영권이 인근의 중국 여성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주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 농업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고대사회부터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하였다. 물론 다리를 걷어 올리는 모내기 등의 거친 논농사에는 참여하기 힘들었던 바, 여성농업은 논의 김매기를 포함하여 주로 밭농사였다고 하겠다. 양반은 손에 돈을 쥐어서도 안 되고 쌀값이 얼마인가 물어서도 안 되는[49] 조선사회에서는 물론, 일찍부터 여성들은 논밭에 나가 품삯을 받는 임금노동도 해야 했다. 더욱이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으로 생활하였을 대부분의 빈농층 여성들은 더욱 그러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아낙네들이 점심까지 굶어가며 임금노동에 종사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도 있다. 즉, "모내기철 모품팔이 아낙네들 일손 바빠 / 보리 베는 남편일도 도울 생각 전혀 않네 / 이서방넨 뒤에 가고 장서방네 먼저 가네 / 예로부터 돈모심기 밥모보다 낫다 하네"[50]가 그것이다. 18세기이후 야담집 등의 문헌을 보면 여성들이 재산증식 능력이 뛰어난 거부가 된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경제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근면 검약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요, 경제적 생산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3) 수공업

전근대사회 여성들은 정숙한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과 자질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교육을 받았다. 고대사회부터 행해진 여성의 생산노동 가운데 농업 이외의 대표적인 것으로 누에치기, 옷감짜기, 바느질, 염색 등의 수공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잠과 방직 등의 직조업에는 왕비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평민여성들은 숙련공의 수준에 이르도록 가정에서 기술을 습득하였다.[51] 면화재배부터 포를 짜기까지 모두 여성의 노동력이

49) 박지원, 「양반전」.
50) 송재소 편역, 『다산시선』, 창작과비평사, 1981. 231면.
51) 홍만선, 『산림경제』.

www.kci.go.kr

요구되었는데, "한 사람의 베짜는 여인의 수입이 농부 세 사람의 수입보다 낫다"[52]고 할 정도로 여성의 노동가치가 높았다. 한편 상주에 사는 김씨의 처가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도 그의 10년에 걸친 직포생산에 따른 것[53]이라 한다. 사실 포가 의생활을 유지하거나 물류를 유통시키는 화폐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충당하는 역할까지 했던 전근대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길쌈의 가치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4) 상업

전통적 여성들이 집안에서의 가사일을 비롯 농업 · 수공업의 생산노동에 그치지 않고 집밖의 시장으로까지 진출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여성들에 의해 생산된 직물류의 높은 상품가치는 여성들을 시장으로 적극 유도했을 것이다. "신라의 저자에서는 여자가 다 팔고 산다"[54]든가, "고려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이 서는데, 부녀들이 모두 버드나무 광주리를 들고 다닌다"[55]고 했듯이,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상업에도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많이 하였다. 양인 이하의 여성들은 시전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다. 양반집 여성들조차 가정경제가 여의치 못할 때는 행상에 나서야 했다.[56] 형편이 어려운 사대부집안의 여성들은 주로 삯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을 전해 듣고 뽕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당부했던 데서 양잠이 시장경제를 겨냥한 상품으로서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57] 빙허각 이씨도 차밭을 경영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듯이 18세기 이후에는 담배, 차, 약재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큰 돈을 벌기도 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모은 자본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기도

52)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72, 184면.
53) 작자미상, 『청구야담』 권1.
54) 『신당서』 신라전.
55) 서긍, 『선화봉사고려도경』.
56) 양반인 오희문은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음을 전한다.(오희문, 『瑣尾錄』).
57) 송재소, 앞의 책, 220면.

www.kci.go.kr

했다. 더욱이 17, 18세기 이후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과부들 중에는 고리대의 방법, 즉 사채행위로 상업자본을 축적하기도 했으며 광작농의 발달도 과부들의 축재를 자극했다[58]고도 한다. 국제무역을 개척한 소현세자빈 강씨의 활동이나 자선사업을 전개한 제주기생 김만덕[59]의 업적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Ⅳ. 결론

여성 연구를 비롯하여 여성학 연구, 여성주의 비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여성이 갖는 가치를 적극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젠더 연구적 시각에서 우리의 여성사를 보면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만도 아니다. 사회적 신분별 또는 경제적 활동의 측면으로 살펴 볼 때 역할, 능력, 기질 등에서 여성이 남성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특히 신분별 측면에서 우리의 여성들이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왕이나 왕비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남편으로부터 '군자'로까지 불리며 존경을 받았던 사대부가녀들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서 그들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소중하다고 본다. 더구나 천민여성에게서조차 주체적 존재의식이 엿보이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어느 영역에서나 여성은 타자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왕족 여성은 물론 천한 신분의 기생, 무녀들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인 삶의 의식을 지닌 여성들도 많다. 특히 역할을 인식하고 의지를 보였던 여성들의 주체적 사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적절히 나타났다. 여성주의 비평의 입장에서 결혼은 여성을 무보수의 가사노동에 옭아매는 노동계약이라고도 했으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나름의 지위가 있었고 여성들은 가사노동에만 구속되지 않고 활발하고

58) 김영모, 「조선후기의 신분구조와 그 변동」, 『동방학지』제26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1.

59)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만덕은 장사를 하여 모은 재산을 다 바쳐 수천 명을 구했다고 한다. (채제공, 『번암집』「만덕전」).

www.kci.go.kr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갔다.

같은 유교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부계계통으로만 가계를 계승했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었고, 재산상속도 중국은 아들에게만 주어진 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또 가정경제권을 가장이 쥐고 있었던 중국과 달리 우리는 집안의 경제권을 주부가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여성주의는 수세기에 걸쳐 성적(젠더) 평등과 가부장적 성 역할의 해체를 위해 힘써 왔으며 지금도 완전한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분투하고 있다. 여성주의 이론과 문화비평을 포함한 모든 여성주의적 활동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진작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다. 한국여성의 역사적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단으로서의 본고도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는 사례에 대한 논의 속에서 관련된 주요 저술이나 논문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텍스트

『고려사』, 『대동야승』, 『대전회통』, 『번암집』, 『사소절』, 『산림경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선화봉사고려도경』, 『세조실록』, 『쇄미록』, 『신당서』. 「양반전」, 『연려실기술』, 『용재총화』, 『임윤지당유고』, 『옥소집』, 『조선상고사』, 『직암집』, 『청구야담』.

– 참고논저

구명숙, 『한국 여성시』, 역락, 2011.

김경미, 「임금 앞에 서고 싶었던 규방의 부인 송덕봉」,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66면.

김영모, 「조선후기의 신분구조와 그 변동」, 『동방학지』 제26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1.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72, 184면.

www.kci.go.kr

김종성,『왕의 여자』, 역사의아침, 2011, 267면.
맹문재,『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 문학』, 월인, 2002.
박무영,「생애는 석자 칼 마음은 내건 등불 김호연재」,『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144면.
송재소,『다산시선』, 창작과비평사, 1981, 220면.
신명호,『조선공주실록』, 역사의아침. 2009, 7면.
안춘근,『역사를 빛낸 한국의 여성』, 범우사, 2002, 149면.
윤정란,『조선의 왕비』, 차림, 1999, 253면
이남덕,「전통사회와 여성의 힘」,『한국여성의 어제와 내일』, 이화여대출판부, 1976, 11-23면.
이능화(김상억 옮김),『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368면.
_____(이재곤 옮김),『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82면.
이성숙,「오늘날, 여성사란 무엇인가」,『여성과역사』 제6집, 한국여성사학회, 2007.
이혜순 외,『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이화형,『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세상에 맞서 살았던 멋진 여성들』, 새문사, 2009. 33-72면
임인영,「한국근대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사」,『한국근대여성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여성 연구소, 1987, 83면.
정현백,「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자리 잡기'와 '새판 짜기' 사이에서,『여성과역사』 제17집, 한국여성사학회, 2012.
조혜정,「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9.
최정선,『신라인들의 사랑』, 프로네시스, 2006, 45면.
KBS,『역사스페셜』1, 효형출판, 2000, 136면.
한희숙,『의녀』, 문학동네, 2012, 7면.
로이스 타이슨 / 윤동구 옮김,『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241면.

www.kci.go.kr

❖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ive Lives of the Premodern Korean Women in the Viewpoint of Gender

Lee, Hwa Hyung

The ultimate goal of women's studies and feminist critics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women and recognize women's values. When we examine the Korean women's history on the viewpoint of gender, we can find that the gender role is not fixed. We do not have any proofs that there are any kinds of gaps between women and men in ability and temperament. All of women's identity and subjectivity in status and activities was not insignificant. Especially women's subjectivity in high social standing was superior.

The women's activities in economic area were energetically. The productive activities were lively, too. The patrilineal decent is usual in Chana though China is in the same Confucianism cultural area. But patrilineal and matrilineal decent were popular used until the early days in Chosun Dynasty. Only sons can be inherited father's estate in China but it's not in our country. Also the patriarch had the economic power in family in China but the housewives had the power in ours.

The feminism has been making efforts for the equality of sexes and the dismantling of the patriarchal sex role for a long time. Every feminist activities included feminist theory and cultural criticism has the goal to increase women's liberty and equality and change the world.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substance of Korean women is on the way, too.

Key Words
젠더,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주체성, 지위
gender, social activities, economic activities, subjectivity, status

www.kci.go.kr

논문접수일: 2013. 05. 06.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

www.kci.go.kr